

중국 국제회계에 따른 연결대상관리 문화

— 금융사의 사례

郭在源*

< 목 차 >

1. 서론
2. 연구배경
 - (1) 지배력 정의에 의한 연결범위 차이
 - (2) 지분법 회계차이에 의한 범위변동
 - (3) 연결결산 프로세스 변화
 - (4) 기존연구결과
3. 사례분석: A금융회사
 - (1) 사례회사 현황
 - (2)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 (3)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상세 연구
 - (4) 연결대상 관리 구현 문제점
 - (5)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교육방안
4. 결론

1. 서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회계투명성 요구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06년 2월에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와 동일)을 반영한 새 기업회계회칙을 발표하였다. 신 회계제도의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며 중국 회계시장과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업회계회칙에서는 개별회계 중심이었지만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미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주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다.¹⁾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대상 범위의 변화(범위확대 예상)와 분기별로 연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과제가 부과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의 설문결과(2008)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재무제표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오류가능성 증가가 설문항목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동일하게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져준다.

실무적으로 구체화 한다면 연결 대상을 판정하고 판정한 대상의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가 연결공시제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건이 된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의 신속성을 위한 핵심요건 중의 하나인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사례를 통해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결대상의 확대와 변동내역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연결대상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배회사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개편해 나갈 수 있게 판단정보를 제공하는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을 논의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결과가 향후 연결대상을 확정하고 지배회사의 지배구조 전략을 효과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 淑明女子大學校 經營學科 兼任教授.

1) 중국의 경우 합병재무제표라고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한다.

2. 연구배경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으로서 연결대상,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배력 정의에 의한 연결범위 차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중국 기업회계준칙 33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하여야 한다”(Requires a parent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지배력의 유무에 의해 연결범위를 결정한다.”(Specifies the scope of consolidat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control”.)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Control is the power to gover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olicies of an entity so as to obtain benefits from its activities.”)

지배력은 지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이외의 상황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 지분율 이외의 상황이라는 것을 ‘실질지배력’이라 하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 미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Control)를 기준으로 연결범위를 판단하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상이한 연결범위를 보이며 기존의 배제조건 등이 없어지면서 연결대상 범위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연결범위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던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의 결과물인 SPE(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시 연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²⁾ SPE의 경우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기업의 자산/순자산 변동 효과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표 1> SPE의 연결범위

구분	국제회계기준
연결범위 (SIC 12)	-SPE의 활동이 수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권을 보유하는 회사에 의해 연결대상임을 파악 -통제권의 보유여부는 기존 지분율 개념을 적용안하고 SPE로부터 산출되는 이익 또는 손실의 대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의해 결정함

(2) 지분법 회계차이에 의한 범위변동

지분법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하지만 연결범위의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범위를 관리하는데 영향을 준다.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2> 지분법 대상의 차이

구분	국제회계기준
중대한 영향력 (IAS 28)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배제하고, 투자회사의 지분과 투자회사의 종속회사를 통한 (직접)지분만을 고려함 → 지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회사가 발생 가능함

2) 실제 SPE대상회사의 재무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연결결산을 수십 회 수행한 경우도 있다.

조인트 벤처 중 공동지배회사의 경우 비례연결법과 지분법이 다 허용됨에 따라 공동지배회사도 지분법 대상회사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전에 회계기준 차이에 의한 지분법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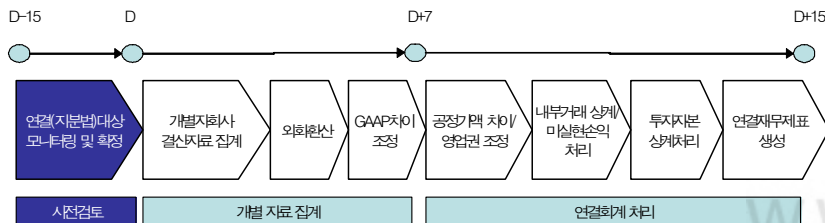
지배력 및 지분법 차이에 의한 연결관리 범위 확대로 연결실체의 복잡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무정보의 오류 확률은 높아져 정보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잡한 연결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수치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모니터링 관리가 요구된다.

(3) 연결결산 프로세스 변화

<그림 1> 연결결산 프로세스처럼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자회사의 결산자료 취합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생성까지 8단계의 결산절차를 걸쳐 작성되며 연결대상회사 및 자회사 범위를 확정하는 연결대상 관리절차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분기별 45일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연결대상관리 및 확정 프로세스는 D-15일부터 D-day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세스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연결결산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하게 된다. 연결결산의 지연은 연결 재무제표 생성의 지연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공시일정의 지연을 가져와 재무정보의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을 높인다.

<그림 1> 국제회계 기준하에서 연결결산 프로세스



(4) 기존연구결과

Beaver(1968)에 의하면 재무보고의 지연으로 재무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의 질이 나빠지거나 의사결정에 내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Givoy and Palmon(1982)은 감사보고시차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재무보고의 적시성 결정요인으로, 감사보고시차가 길어질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강내철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332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최근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회계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재무보고가 유의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연결실체의 복잡성이 클수록 감사인은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감사절차에 더 많은 감사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재무보고가 지연됨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나아가 A금융회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3. 사례분석: A금융회사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A금융회사의 연결대상 변화 및 이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진행 중인 연결대상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1) 사례회사 현황

사례회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E) 등 연결관리대상이 추가되고, 지분법회계차이로 지분법 범위 대상이 확대되었다. 사례회사의 경우 국제회계 기준을 따를 경우 200X년말 기준으로 SPE가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대상이 20여개에서 67개로 증가하게 되고(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시 128개 추가 증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 회사가 기존 79개에서 99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재무보고의 지연이 예상되어 사례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대상 관리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연결대상 관리 기능은 지분율 및 기타 추가정보를 바탕으로 결산일 이전에 연결범위인 연결대상 회사를 결산일 전에 미리 확정하여 결산자료를 조기 확보함으로써 결산일정을 준수하고 재무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기존의 회계정책 및 시스템현황

신회계준칙 도입 전 연결대상 범위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 및 프로세스는 이전에 사례회사에 없었다. 재무담당자가 매 회계연도 결산시마다 결산지침을 각 자회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지분율만을 연결대상여부 판단의 기초로 삼았으며, 특수목적실체(SPE)에 대해서는 연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지분율을 바탕으로 인적판단에 의해 연결대상을 판단하고 있었다.

2) 연결대상 관리현황

현재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례회사가 연결 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주식(일반유가증권), 조합, 수익증권, 유동화 및 기타 SPE에 대한 관리 요건과 관리정보를 <표 3>에서 정의하였다.

<표 3> 연결대상 관리요건 및 관리정보

연결대상	대상내용 및 관리요건	관리정보
주식(일반유가증권)	주식(일반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지분율을 바탕으로 연결대상을 판단하고 있으며 지분법 대상의 경우 비율 변동이 있었음	(상장/비상장) 투자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조합	조합의 경우 조합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일 경우는 연결 대상이 되며, 기타 유한책임사원,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20% 이상 취득 시에는 지분법 대상으로 분류	무한/유한 책임사원여부 지분율 정보
수익증권	수익증권의 경우 50%초과 취득했을 경우 연결대상임	총발행좌수 취득좌수
유동화 및 기타 SPE	SPE의 경우 해당회사가 인수한 유동화 출자지분, 은행등이 제공한 신용공여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SPE관리정보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연결대상변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사례회사는 200X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70개나 증가하여 195개 대상으로 대폭확대 되었다. 이에 대한 증가원인은 지분법 회사, 조합, 특수목적실체, 중간지배회사의 특수목적실체회사의 증가 등이었다. 또한 지분법대상도 동시에 증가했다. 200X년 말 지분법대상 관계회사도 20여개가 증가했는데 이는 지분법회계차이로 인한 범위변동으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1)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필요성

www.kci.go.kr

사례회사의 경우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으로 연결대상이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대상이 계속 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결산프로세스의 연결대상 관리는 연결결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연결 및 지분법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이에 대한 오류검증 및 이에 대한 오류정정 과정 등 자회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길어져 결산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연결 결산 프로세스 전체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연결회계담당자는 연결대상 정보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신속성과 정확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정보의 오류 및 재무공시의 실패를 초래하여 기업의 시장실패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 또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회계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켜 결산에 많은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해결방안으로 연결 대상의 확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³⁾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요구한다.

첫째, 기업실체 정보관리: 기업실체들 간 관계를 인식할 수 있기 위해 연결 시스템 내 연결실체 회사(연결대상, 지분법대상, 기타 개별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연결지분관리: 연결대상을 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입력, 타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관리 기능이 요구된다. 발행주식 내역과 보유주식내역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 등이 관리되어 결산 전에 최종지분을 및 확정 대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결판단정보관리: 연결대상 여부 판단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된 연결판단 체크리스트에 입력된 항목들을 분석하여 연결 대상 판단여부를 조회하고 결산담당자가 확정리스트를 결산기말 기준으로 생성하여 연결 대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가장 교육이 요구되는 기능이다.

3) SPE관리시스템은 연결대상 관리시스템과 유사하지만 별도관리 된다.

넷째, 연결지분현황 파악 및 정보이체: 연결대상 과거내역 및 확정리스트를 조회하고 이를 연결시스템으로 대상 리스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 시스템은 연결지분현황의 정보를 기준으로 연결결산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개요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은 사례회사의 연결결산 공시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으로 연결대상 범위 판단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입력하여 대상회사들의 리스트를 결산 이전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은 각 원천시스템으로부터 지분율 정보, 고객 정보 등을 인터페이스하고 입력된 추가 정보를 취합하여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된 연결대상 리스트는 연결 공시시스템 및 SPE관리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되며, 내부거래 내역 취합을 위해 각 원천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된다. <그림 2>는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도식화 하였다.



(3)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상세 연구

1) 기업실체 정보관리

기업실체들의 법인코드 등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실체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연결대상(지분법 대상 포함) 관리를 위한 실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법인번호, 설립일 등의 기초정보를 입력하며, 회사 등 실체 코드를 시스템에서 별도 부여하여 모회사 및 자회사 정보를 통합 관리 한다. 사례회사의 경우 고객기본, 법인고객 명세, 고객 상세명세 등의 고객정보를 데이터 원천으로 하여서 기업실체정보를 구성하였다. 모회사에서 등록된 정보와 자회사에서 등록된 실체정보를 동일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2) 지분정보관리

기업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수 정보와 모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수를 관리하여 지분을 계산을 위한 지분내역의 기초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실제로 각 원천시스템별로 지분정보관리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연결대상별로 개별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 수량은 자회사의 연결대상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인터페이스 되거나 월별로 관리시스템에 자회사 회계 담당자가 보유주식수 및 총발행주식수를 입력관리 하게 된다. 매월 지분정보의 변동사항이 자회사별로 기록되고 전달되었는지 조기에 파악되어야 한다.

3) SPE정보

가장 변동성이 높은 특수목적실체인 SPE의 기본정보를 관리한다. 사례회사의 경우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 SPE기본정보와 SPE 코드 정보를 매일 이체하여 연결대상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SPE 기본정보를 데이터

원천으로 하여 SPE체크리스트 항목을 생성하며 복잡한 연결 거래구조도와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4) 연결판단정보관리

연결대상 확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입력 가능하고 연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 리스트를 조회하고 연결대상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다.

연결대상 확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은 연결대상판단을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 사례회사의 경우 일반유가증권, 조합, 수익증권, 유동화 및 기타 SPE 등 해당 성격에 따라 공통정보를 제외한 추가정보의 입력 창을 활용하여 상품 성격별로 체크리스트 상세정보를 관리한다.

<표 4>에서처럼 보유주식(일반유가증권)의 경우 9개 유형에 5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담당자의 판단정보에 대한 사전 숙지가 언제나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입력주기 및 변동사항 관리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표 4> 주식 체크리스트 상세 예시

입력유형	입력갯수	항목
1. 기본정보	10	회사명, 고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2. 재무 및 기타정보	6	기준일자, 자산총계, 자본총계 등
3. 발행주식정보	9	기준일자, 총발행주식수 등
4. 보유주식정보	6	보유주식수 (보통주, 무의결우선주, 의결권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여부 등
5. 희석증권정보	3	보유 희석증권여부, 즉시전환가능여부 등
6. 자회사정보	2	지분보유 자회사명, 희석증권 보유 자회사 명
7. 보유지분의 지배력	5	의결권 행사약정여부, 재무 및 영업정책결정능력 등
8. 보유지분의 중대한 영향력	6	이사회 구성여부, 정책결정 참여여부 등
9. 사실상지배력	11	주총참여주식수(당해연도, 전년도, 전전연도), 의결권 행사주식수 등

5) 연결지분현황

연결판단 정보관리에 따라 확정된 연결대상 실체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확정된 리스트를 관련 연결공시시스템 및 SPE관리시스템에 제공한다. 연결대상으로 확정된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며, 금번 결산기 외에 과거 결산기의 연결 및 지분법 대상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거 결산기 대상 리스트를 이력자료를 관리한다.

이상으로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상세하게 연구하였으며 이를 구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4) 연결대상 관리 구현 문제점

사례회사의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각 프로세스마다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연구해 본다.

첫째, 연결실체 간 법인정보, 계정과목 등 기준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문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업실체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거나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회사가 관리하는 법인정보가 고객관리 시스템의 법인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다면 자회사의 고객정보도 모회사 기준으로 새롭게 생성하거나 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인등록번호를 모회사 고객정보와 일치하는 대응작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기업실체는 아니지만 연결대상이 될 수 있어 연결실체처럼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수익증권, 조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방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익증권이나 조합 등은 식별가능한 고객코드나 법인등록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정보의 상세수준을 관리하는데 있다.

셋째,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으로 원천시스템에서 이체 받아야할 정보의 상세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식의 경우 중 투자주식수와 총발행주식수는 변동시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 받을 수 있지만 전환우선주수, 희석증권수, 이사회 참여 등은 이체할 정보도 많고 변동 파악도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 변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연결대상 관리를 위해서는 지분율 정보의 관리수준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5% 이상 등 일정비율 만을 관리하는 것이 비용/효익 대비 효과가 클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담당자의 체크리스트의 입력관리다. 주식의 경우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입력항목수(예, 일반유가증권의 경우 9개 유형에 58개 항목)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력 량이 상당히 많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류가 1,000개만 되어도 58,000개의 항목을 담당자 혼자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월별 변동사항을 매번 입력 관리하는 것은 담당자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표 5> 체크리스트 유형과 항목 수

구분	입력유형수	항목수
일반유가증권	9	58
조합	5	24
수익증권	5	24
유동화SPC	9	47
기타SPC	2	12
합계		165

여섯째, 비상장주식수의 총발행주식 수를 관리하는 문제다. 비상장주식수의 경우 취득 시에 총발행주식수를 입력하거나 이체받아 관리되지만 추가취득이나 처분, 증자 및 감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유주식수 변동만을 입력할 뿐 총발행주식수를 입력하지 않아 총발행주식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결범위 대상회사의 판정기간을

단축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축적하여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 교육방안

국제회계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회계담당자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국제회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정보의 작성과 해석, 국제회계기준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 경영방침과 재무전략 등을 이해하여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결대상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회계담당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원칙뿐만 아니라 작성절차, 연결결산절차가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결대상에서 기초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실체의 기준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이에 대한 코드간 대응방안을 관리할 수 있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정보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등록하거나 대응관계의 변화사항을 즉각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업무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실체의 유형은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수익증권, 조합, SPE등 다양한 원천의 변화가 자회사에서 발생하였을 때 자회가 회계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룹회계담당자가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중요한 연결대상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연결실체의 정보를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주

식의 투자주식수와 총발행주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환우선주, 희석증권수와 같은 보조정보도 연결대상을 판단하는 중요정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 안된다. 연결실체 정보는 기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모회사에 전달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넷째, 연결대상 관리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체크리스트의 입력관리 교육이다. 체크리스트의 수가 많고 입력항목수가 많아 담당자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의 판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의 변동사항을 세심하게 업데이트하느냐에 따라 연결대상 관리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의 회계담당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결론

중국은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회계투명성 요구에 따라 2006년에 국제회계기준 반영한 신 기업회계회칙을 발표하였고 중국 내 글로벌을 지향하는 회사들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작성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주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업회계제도 하에서 연결대상을 결정할 때보다는 연결대상이 상당량 증가하게 되고 실체의 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또한 연결결산 신속성을 위한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연결실체 복잡성의 증가는 연결공시의 지연을 발생할 확률을 높이며 오류발생의 위험을 증가한다.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연결공시를 위한 작업수행 기간단축은 연결정보의 신뢰성을 낮추고 연결공시의 지연 또는 공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기업들은 향후 발생하게 될 재무보고 지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금

융권의 사례회사를 통하여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기능, 그리고 시스템적 요구사항을 고찰하고 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사례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경우는 연결대상이 대폭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복잡한 연결실체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결산상에서 발생하는 운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하는 결산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 기업실체정보관리 2) 연결실체정보관리 3) 연결판단정보관리 4) 연결지분현황의 주요기능 등으로 구성된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주식, 조합, 수익증권, SPE별로 연결대상이 되는 기준정보와 이를 등록, 조회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이체방법 등의 관리방안을 조사하였다. 연결대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방안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회사 정보관리 수준 향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증권, 조합, SPC등의 정보를 실체화 하여 지속적인 축적관리, 이체할 정보의 상세 수준 정도의 결정, 지분율 정보의 관리수준, 체크리스트의 입력관리, 비상장주식수의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매월 관리되어야 하는 연결판단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경우 입력 량이 매우 많아 실제로 관리할 때 회계담당자에게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 해결노력과 교육을 통해 연결대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연결결산 이전에 많은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결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보고 지연을 해결할 수 있다. 연결대상 정보가 적시에 확정되고 관리 되면 정보의 오류가 최소화되고 담당자들이 연결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및 구조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 강내철·김길훈(2007), <분기검토가 연차보고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2권 제2호, 153-175쪽.
- 강내철·김성환(2008), <연결실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재무보고 지연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제47호.
- 강선민·한봉희·황인태(2009),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 (<http://ifrs.fss.or.kr/ifrs/main.jsp>)
- 금융감독원(2007), 《국제회계기준 동향》15호.
- 삼일회계법인(2008), 《2008 IFRS Survey》.
- 삼정회계법인(2008), 《국제회계기준 요해》.
- 서태정(2008), <한국과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계획 및 현황>, 《상하이 저널》.
- 오준환·김호중·김성남(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 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15권 제2호.
- 이용수(2007),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우정정보》70호.
- 이장규·박승덕·신현상·안만호·이세경·안상미(2008),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다.》, 교보문고.
- 임석식·김경태·이영한(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기준연구원 연구보고서》.
- 하시모토 타카시(2008),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콜로세움.
- 한국공인회계사회(2008), <한국과 주요 5개국 회계제도 비교분석 — 국제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7),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및 Deloitte(2007), 국제회계기준 세미나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2006),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 한국회계기준원(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자료.
- 한국회계기준원(2007),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 — 국제회계기준(가칭)의 차이와 영향분석.
- 한국회계기준원(2007),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분석.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온라인교육홈페이지(<http://www.kifrsacademy.co.kr>).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

황인태·한봉희·강선민(2009),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 경제연구원.

Ashton, R. A., J. J. Willingham, and R. K. Elliott, 1987.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 dela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2), pp.275-292.

_____, P. R. Graul, and J. D. Newton, 1989. "Audit delay and the timeliness of corporate report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5(2), pp.657-673.

Beaver, W. H., 1968. "The information content of annual earnings announc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pp.67-92.

Bamber, E. M., L. S. Bamber, and M. P. Schoderbek, 1993. "Audit structure and other determinants of audit report lag: an empirical analysi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12 No.1, pp.1-23.

Carlsaw, C., and S. Kaplan 1991. "An examination of audit delay: further evidence from NewZealand",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22 Winter, pp.21-32.

Hoyle, J. B., Schaefer, T. F., Douppnik, T. S. 2009, *Advanced Accounting*. ninth edition. McGraw-Hill. New York.

Horton, J., Serafeim, G., 2007. "Market Reaction & Valuation of IFRS Reconciliation Adjustments: First Evidence from the UK" Working Pap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6. "IFRS 2006 Survey".

KPMG. 2006. The Application of IFRS: Choices in Practice.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is an importan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and its place in the world's increasingly integrated capital markets. The adoption of the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system brings about substantial convergence between Chinese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as set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The benefits of these accounting reforms for China are clear. The new Chinese standards that in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 familiar to investors worldwide will encourage investor confidence in China's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reporting and will be an additional spur for investment from both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of capital.

Significant change under IFRS is to disclose interim reports (quarterly reports) within 45 days. This complexity and timeliness lay a burden on Global firms and may lead to the increased risk of presenting incorrect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delay of issuing statements. In order to avoid the delay of disclosing financial reports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on developing and establishing consolidation monitoring system.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establishing monitoring system is to minimize the risk of presenting incorrect financial information by preventing the omission of target subsidiaries and collecting accurate financial information on a timely basis.

This research will analyze cases occurred in financial sector to consider the needs and functions of consolidation monitoring system. It will also discuss the possible issue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monitoring system and seek out the appropriate solutions in order to suggest training guidelines for accomplishing the correctness and timeliness of producing and prese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Keywords: CAS 2006, IFRS, Consolidation, Consolidation Monitoring, Timeles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7	2009.9.17	2009.10.8	2009.10.12	2009.10.30